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흥군수 측근 '배불리기?'

수십억 토취장·장비 사용 등 '이권·특혜' 의혹
예산낭비·각종 민원에 '갑질 행정' 잇단 잡음
기반 조성부터 빼격...국책사업 한 발짝도 못가

정부와 전남도의 농업분야 핵심시책인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사업의 첫 단계인 기반조성 공사가 착공됐지만, 토취장 허가와 각종 장비 사용 등을 두고 사업 대상자인 송귀군 고흥군수 주변 인사들의 이권개입과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3일 전남도와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지난 9월 착공했다.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33.3ha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고흥군 도덕면 일대에 준공될 계획이다.

이중 첫 단계인 기반조성 공사는 한국농어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발주해 지난 9월 7일 첫 삽을 떴다. 사업비 80여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준공이 목표다.

하지만, 기반조성을 위한 토취장 허가 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면서 착공 3개월이 다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반조성에 사용될 순성토(흙) 설계량은 24만1,675㎥로, 15t 덤프트럭 3만 4,000여대 분량이다. 흙값과 운반비만도 16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발주처인 농어축공사는 설계 당시 고흥군에 의뢰해 도덕면 용동리에 10만487㎡(15t 1만4,000여대)의 1토취장을, 도양읍 장계리에 10만5,346㎡(15t 1만5,000여대)의 2토취장을 선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단체장의 이른바 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2토취장의 경우 송군수의 4촌 처남인 신 도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흙값을 받지 않는 대신 공사기간 자신이 운영 중인 주유소 사용과 텀프·굴착기·도자 등 각종 장비 사용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 군수를 도운 인사의 참여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씨가 고흥군에 요구해 농어축공사, 원도급업체를 거쳐 협력업체에 전달된 문건에는 장비 업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보유장비 현황 등이 적시됐다.

1토취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토취장 소유주가 과도한 흙값을 요구, 현재 토취장 사용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1토취장 소유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고흥에 유치되자 급하게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토취장은 사업부지와 왕복 16km, 2토취장은 왕복 24km가 소요돼 예산낭비와 소송, 분진 등 각종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토취장 문제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사에서 기반조성에 필요한 흙과 예산절감 등을 위해 확보한 3토취장에 대해 고흥군에서 서류접수조차 받지 않으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정근산 기자



무등산 첫눈

쌀쌀한 초겨울 날씨를 보인 23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일대에 흰 눈이 내려 장관을 이루고 있다.

/김생훈 기자

"1천만평 무안복합공항도시·김대중국제공항 제안"

강기정, 광주·전남 상생발전 포럼... "호남 대신 공약돼야"

광주군·민간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00만평 규모의 복합공항도시와 민간통합공항 명칭으로 '김대중국제공항'을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23일 '광주·전남 상생발전, 통합공항을 시작으로' 주제의 온라인 포럼 기조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상력과 사이즈, 접근방식으로 광주·

전남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안공항의 국제선과 광주공항 국내선, 광주군공항을 한 곳으로 통합해 국제관문을 확보해야 하고, 규모는 1,000만평의 공항도시가 돼야 한다"며 "통합공항과 공항도시는 다가올 대선에서 호남 상생공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통합공항 건설을 위해서

는 광주·무안·국방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작은 양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는 빅딜'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공항 방향으로 ▲군·민간공항 한 곳으로 동시이전 합의 ▲국내·국제선 민항 한 곳으로 통합 합의 ▲군공항 규모 현재 수준 유지 ▲소음피해 최소화해 위해 완충지역은 국방부 계획보다 7배가 넓은 규모로 조성 ▲1,000만평 공항도시 공동개발 등 5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 전 수석은 "무안·광주 통합공항 명

칭도 평화와 화해의 상징을 담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대중국제공항은 서남권 관문공항이자 초광역경제권 거점으로서 '이익공유 공동체'를 위한 필수 시설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조발제 후 더큐브 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이병택 전남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이·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 "평동 준공업지역, 난개발 않겠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과 관련해 "아파트 위주 난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차담회에서 "내년 1월 29일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이달 안에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협업 TF팀을 조기 구성해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황동강변 장복습지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 접수마감 결과, 17개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건설회사 10곳, 부동산 업체 5곳, 금

용 투자 기관 2곳 등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위한 난개발, 황동강변 친수공간 훼손 등 우려를 해소하도록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시는 약속했다.

/황애란 기자

August, 2020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지(민선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청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죽동 165-14